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마음에 새긴 생각 성경: 누가복음 2장 8-20절

Tag:

-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눅2:8-20)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5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유다의 경건한 처녀. 어느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한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아마 마리아에게가 먼저였으며, 요셉에게는 아무리 빨라도 약 3개월 이후 썸이었을 것이다.)

1.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날

-마리아는 처녀였으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브리엘을 통하여 듣게 된다.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눅1:28)

-그러나 마리아는 당황하게 된다. 왜냐면 자신은 처녀였으며,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가 늙었으나 이미 잉태하였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을 방문한다.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마리아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태 속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 무언가 영적인 싸인을 받는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비로소 안심을 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냐면 천사는 그녀가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패러다임 시프트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녀는 이제 왕을 낳게 될 여인인 셈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였다. (왜냐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아구스도의 영으로 힘겨운 베들레헴 여행이 시작되다.

- 다행히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다 결혼식을 하였다.
-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가서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 요셉도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였다.
- 그러자 갑자기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하였다.
-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집 자손인고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였다.
- 그러나 임신한 마리아는 늦고 더딜 수밖에 없었다.
- 베들레헴에 도착 하였고, 산기가 시작되었는데 방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
- 하는 수 없이 마굿간에 가서 출산하였다.
- 그러자 갑자기 목동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귀중한 보물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 마리아는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가 생각했을 것이다.
- 꿈과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굿간이 문제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앞에는 이집트 피난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3. 이집트 피난

-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였다.
- 베들레헴에서는 2살 아래로는 모든 아이가 죽임을 당하였다.
-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집트로 피난하였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두 내외는 피난생활의 고난을 참고 이겼는데, 이는 장차 이 아이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4. 12세 첫 성전 방문

-예수님이 12세가 되어 성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

-예수님으로서는 율법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은 정신없이 그들과 토론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 가족은 이미 부랴 부랴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다.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동행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물어 물어 3일만에 성전까지 가 보니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 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엄마로서 예수에게 편잔을 주었다. 우리가 근심 중에 너를 찾아 헤매었노라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나 부모들은 그가 하신 말(아버지 집)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5. 전도여행 중 찾아온 마리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여행 하는 중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귀신 들렸다는 소문 때문이다.

-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잠깐 밖에 나오게 해 달라는 면회신청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하셨다.

-아마 이때부터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청중 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6. 십자가 아래에서의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는 그 곁에서 죽음을 지켜보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 생애와 부활까지의 기간 중 가장 많이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참했으며, 마침내는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셈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부활한 다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 교회의 일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가족이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도 마리아의 가족처럼 성탄에서 부활, 재림까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자.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의 생애(남겨진 생애는 복음증거와 교회의 영광, 그리고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